

“새해에는 취업 성공... 모두들 목표 이뤘으면”



뱀띠 청년들의 희망가

취업준비생 강혜선(23)씨

영상 매력 '폭'...관련업계 취업희망 학생회·동아리·대외활동 역량 키워 금전문제·고용불황 취업생 큰 부담 고민 많아도 미래 그리며 희망키워 “최선 다해 멋진 사회인으로 성장”

대한민국이 외환위기를 졸업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던 2001년 태어난 뱀띠 세대가 십이간지를 두 바퀴 돌아 다시 푸른 뱀의 해를 맞았다. 어느덧 청년기에 접어든 이들은 사회로 향하는 출발선에 서서 도전과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일보의 더 나은 미래를 꿈꾸며, 고민과 좌절을 딛고 꿈을 향해 굳세게 나아가는 뱀띠 취업준비생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2025년의 첫날인 1일 만난 취업준비생 강혜선(23)씨는 오는 2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조선대학교에서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한 강씨는 향후 미디어 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다.

그는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소리와 시각 등 복합적인 감각으로 전달되는 영상 매체를 통해 사람들의 삶과 고민을 담아내고,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며 가까이 다가가고 싶다”고 밝혔다.

강씨는 대학시절 학과 학회장을 역임하고, 학내 영상동아리와 각종 대외활동을 통해 활발히 활동하며 본인의 역량을 키워왔다.

강씨는 “기획부터 촬영과 편집 작업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영상의 매력에 더

욱 빠져들게 됐다. 학우들과 영상을 만들어 출품하고, 평가받는 것은 내게 큰 보람과 성취를 가져다줬다”며 “학생회 활동역시 작은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서로 협력하고 조율하는 단계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영상 등 미디어 직종의 경우 많은 취업 준비생이 도전하는 공무원 시험이나, 일반 기업의 채용 과정과 다른 부분이 있어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다는 게 강씨의 설명이다.

강씨는 “미디어 직종은 일반적인 취업 준비생이 준비하는 과정과 다른 부분이 많아 어떤 부분을 준비할지 몰라 갈팡질팡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코로나 학번’인 2020학년도 이후 대학입학자의 경우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과의 교류도 예전 같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취업준비생들이 갖추고 있는 조건들은 모두 갖춰놓자는 마음이다. 각종 어학, 컴퓨터활용능력은 물론 포토샵이나 영상 관련 자격증 역시 이른 시일 내에 취득하고자 잠을 줄이면서 공부하고 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생활비와 주거문제 등 금전적인 부담, 지역사회의 고용불황과 같은 현실적인 어려움은 강씨와 같은 취업준비생들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다.

강씨는 “대학동기생들과 주위 친구들을 보면 당장 빠른 취업과 생계 해결을 위해 희망하지 않았던 직종의 일을 하는 경우도 많더라”며 “각자 꿈을 포기하고 현실에 순응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사회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다. 스스로도 대학 졸업



대학시절 영상동아리에서 활동하던 강혜선(23)씨의 모습.

본인 제공

후 아르바이트 외에는 당장 정기적인 수입원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는 취업준비기간을 버티기 위해서 식비 등 지출을 최소화하며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다”며 “취업준비 비용을 줄이기 위해 졸업 후에도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학교시스템과 지자체의 청년지원 등의 도움을 받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취업 준비로 고민이 많아질 때면, 그는 취미를 통해 스트레스를 풀고 오랜 좌우명을 되새기며 마음을 다잡는다.

강씨는 “유독 힘들거나 고민이 많은 날

에는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과 근교로 여행을 가거나, 드라이브를 즐기곤 한다. 새해에 꼭 원하는 것들을 모두 이루자며 힘을 북돋아 주는 친구들이 있어 많은 의지가 된다”며 “고교시절 은사님이 해주셨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자’는 말은 평생의 좌우명이 됐다. 근미래에 당당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있을 나의 모습을 상상하며 힘을 얻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많은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되더라도, 최선을 다해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가겠다는 굳은 다짐도 밝혔다.

강씨는 “혹여나 취업시장에서 많은 실

패를 겪게 되더라도 스스로 주관을 잃지 않고 매일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원하는 꿈을 이룰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며 “또한 이러한 고민과 사색의 순간들이 먼 훗날 되돌아봤을 때 가장 값지고, 빛나는 날일 것을 의심치 않는다”며 환하게 웃었다.

마지막으로 강씨는 푸른 뱀의 해를 맞은 지역의 동갑내기 뱀띠 청년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올 한해가 지역의 동갑내기 청년들, 특히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희망으로 가득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힘줘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평안하고 건강한 일상 가득한 을사년 되길”

대형참사·탄핵정국·해맞이 ‘차분’ 지역민 평안한 일상 기원 입모아 자영업자 경기회복·사업변창 소원 취업생 취업성공·목표성취 바람 “안심할 수 있는 사회 조성됐으면”

다사다난했던 갑진년이 저물고, ‘푸른 뱀’의 해인 을사년의 첫날이 밝았다. 지역 각지에 첫 일출을 보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올 한해 동안 평안하고 안정적인 일상이 이어지기를 염원했다.

1일 오전 광주·전남 곳곳의 일출명소에는 2025년의 첫해가 떠오르는 것을 지켜보기 위한 시민들로 가득했다.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해맞이 행사는 일제히 취소됐지만, 새해 안녕을 빌기 위한 지역민들의 발걸음은 분주했다. 대형참사로 인해 지역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고, 12·3계엄사태에 따른 탄핵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탓에 지역민들은 예년과 달리 차분하고, 엄숙한 분위기로 신년을 맞이하는 모습이였다.

지역민들은 다사다난했던 지난해를 뒤로 하고, 새해에는 평안한 일상이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았다.

곽지역(31) 나주 세지중학교 교사는 “탄핵 정국과 우리지역에서 일어난 안타까운 사고로 소소한 기쁨까지 사라진 연

말이었다”며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새해를 맞았지만, 가족들과 제자들 그리고 모든 이들이 보다 평안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새해가 됐으면 좋겠다”고 소망했다.

체육인 윤일모(40)씨도 “이번 을사년이 무난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며 “지난해는 유난히도 다사다난했던 한해였다. 새해에는 가족도, 선수들도 부상없이 무난하게 한해를 보냈으면 하는게 가장 큰 소원이다”고 밝혔다.

광주 광산구에 거주하는 박정진(36)씨의 새해 소망 역시 올해 태어난 자녀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조성되는 것이다.

그는 “어릴적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을 이뤄가는 게 하루하루 신기하면서도 뿌듯한 마음으로 올해를 맞았다”며 “딸아이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아빠로서 지난 연말 일어난 비상계엄과 안타까운 참사 등을 보며 가슴을 졸였다. 새해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꿈꿀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지역 자영업자들은 새해 소망으로 일상 회복과 더불어 경제활성화와 사업변창에 대한 염원도 내비쳤다.

광주 동구에서 유리업을 하는 최승룡(55)씨는 “새해소망은 사업이 잘되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는 것이다. 최근 몇년동안 경기 불황이 이어졌고, 특히 지난해는



1일 오전 광주 남구 월산근린공원에 모인 시민들이 일출을 바라보며 새해 소망을 빌고 있다.

건설경기 위축으로 유리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며 “새해에는 건설경기가 회복되고 탄핵정국이 빨리 수습돼 나라가 안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함평에서 당구장을 운영하는 정은석(52)씨도 “지역에 크나큰 슬픔을 안긴 대형참사의 충격을 이겨내고, 탄핵 정국이 정리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가 돌아오기를 염원한다”며 “많은 사람이 활기차게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지역민들이 당구를 즐기면서 건강한 나날을 보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서구에서 자동차 판매업을 하는

이승진(35)씨는 “지역의 오랜 경기침체로 자동차 구입이 크게 줄면서, 사업 유지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새해에는 경기회복과 함께 지역의 소비 활성화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기원했다.

취업준비생들은 안전한 사회조성과 함께 ‘취업 성공’에 대한 간절한 바람을 드러냈다.

순천에 거주하는 공인노무사 수험생 김지은(26)씨는 “연말 탄핵정국에 이어 지역에서 대형참사가 발생해 안타까운 마음뿐”이라며 “새해에는 누구도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으면 좋겠다. 시험 합격과 함께

모두 건강하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대학생 강나경(21)씨는 “새해 소망은 취업 준비가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이다. 대학교 졸업반을 맞아 아쉬움 없게 대학 생활을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면서 “격정과 부담이 크지만, 필요한 자격증을 취득하고 관련 대내외 활동들을 활발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원하는 곳에 취직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글·사진·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